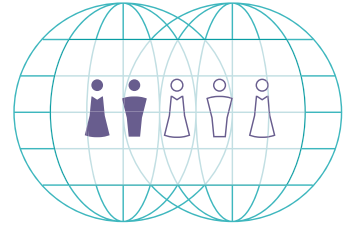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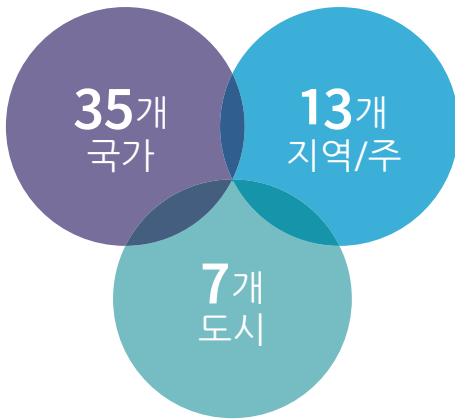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 한눈에 보기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이다.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해 운영된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경제 주체들에 대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부여 받게 된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trade)할 수 있다.



전 세계 국민 5명 중 2명은

ETS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또는 고려하는 국가에 거주



세계 경제의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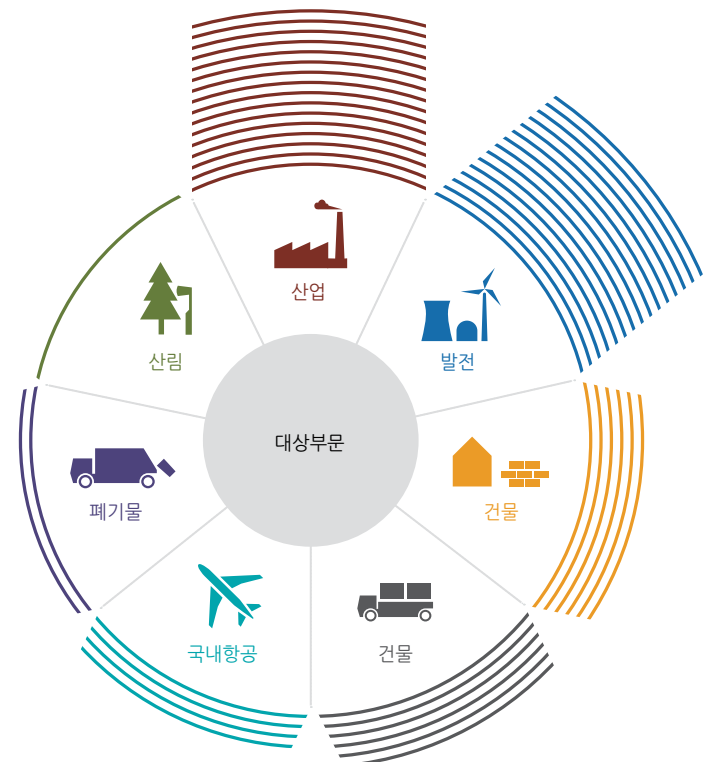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의 전 세계적 확산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최초의 대표적인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출범한지 십여 년이 지났다. 현재 4개 대륙의 17개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세계 경제 점유율은 40%에 달한다. 이외 12개 정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의 다양성

정부는 자국의 지역여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지역의 제도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과 같은 대도시 단위에서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주 또는 지방정부단위, EU와 같은 초국가적인 단위까지 배출권거래제의 운영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온실가스의 종류와 규제부문이 다르듯이 시스템간 다른 설계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가 산업 및 발전부문을 포함하는 반면, 여타 경제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설계될 수도 있다(아래 그림 참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GGI 를 제외하고는 모두</li> <li>사이타마</li> <li>스위스</li> <li>동경을 제외하고는 모두</li> <li>북경</li> <li>한국</li> <li>사이타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해</li> <li>선진</li> <li>동경</li> <li>북경</li> <li>캘리포니아</li> <li>뉴질랜드</li> <li>퀘벡</li> <li>한국</li> <li>상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연합</li> <li>한국</li> <li>상해</li> <li>뉴질랜드</li> <li>뉴질랜드</li> <li>한국</li> <li>뉴질랜드</li> </ul> |
|--|---|--|



괄호안 국가 또는 지역은 상류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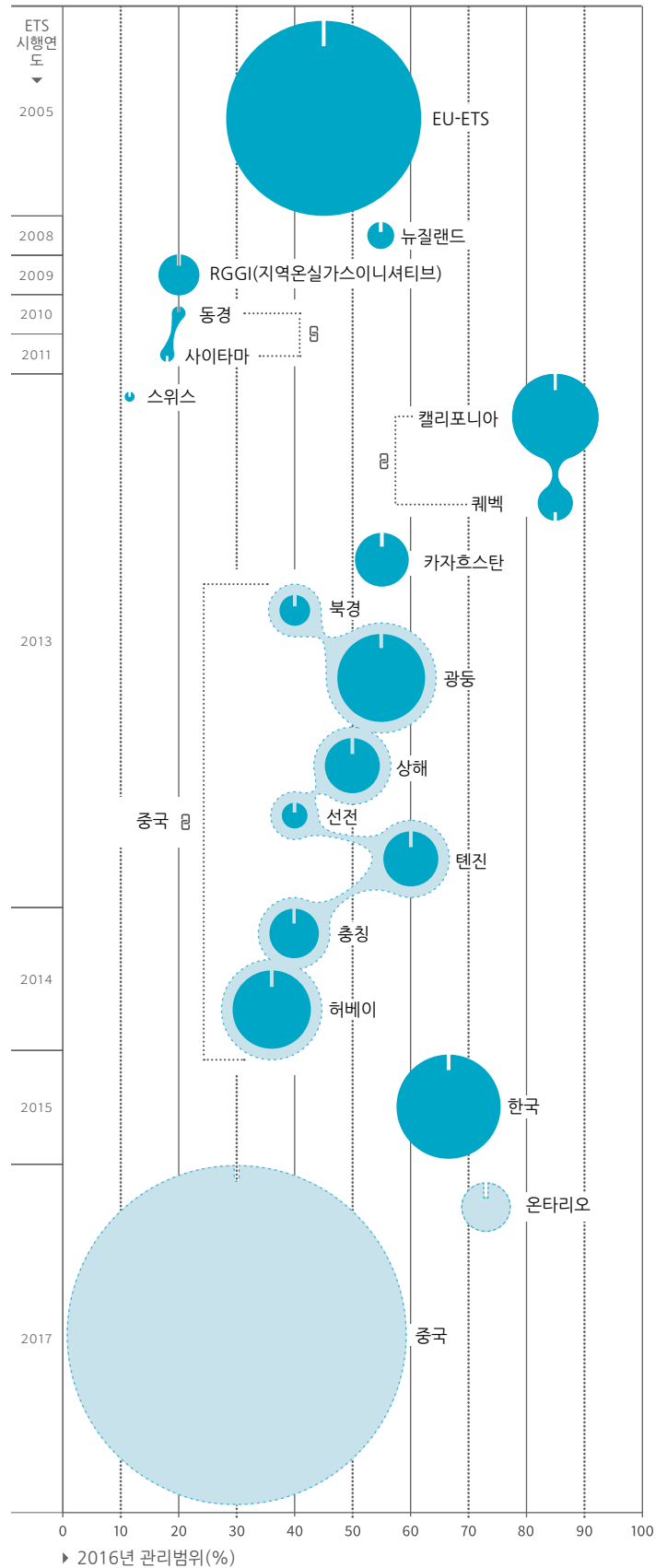
배출권거래제는 십여 년에 걸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개선·발전되어 왔다. 미국 북동부 9개 주가 참여하는 RGGI는 2012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규제정책인 청정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EU ETS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시스템이 기술변화나 경제성장과 같은 외부 변혁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또한 최근 배출권거래시스템의 두 번째 개혁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또 다른 주요한 트렌드는 시장연계이다. 이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지역이 탄소시장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간 배출권의 판매와 구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캘리포니아와 퀘벡이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성공하였다. 2015년에는 수송연료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거래량이 두 배로 증가하고, 두 지역 탄소 배출량의 약 85%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캘리포니아-퀘벡 탄소시장과의 연계 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캘리포니아-퀘벡 연계 탄소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배출권거래제의 출현

최근 아시아는 배출권거래제가 새롭게 발전하는 주요한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2015년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이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EU ETS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탄소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현재 7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부터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착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탄소시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 청정발전계획 발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확장 또는 새로운 배출권거래제의 출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원의 크기는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의 대략적인 규모를 나타내며, 국가간 상대적 크기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국가의 배출량이 얼마나 규제되는지를 보여준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 소개: ICAP은 중앙 및 지방정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포럼입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기술적 논의,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CAP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ICAP 지도](#) 또는 [ICAP 트위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